

■ 호서대 鄭根謨 총장

벤처정신 기르는 교육연구활동 강화

- 대담 : 李光榮 (전북대 초빙교수/본지 편집위원)
- 일자 : 2월 21일
- 장소 : 과학기술사회연구회

호서대 정근모총장은 “호서대의 2세기
기본발전방향은 벤처특성과 기반을 심화하고
모든 학문분야에 벤처정신을 기르는 교육 연구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IT에 기초한
디지털문화 분야는 호서대의 우수분야인
디자인 전공과 게임 엔지니어링 전공 및
문화기획 전공과 연결하여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먼저 총장님의 과학기술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21세기 과학기술의 특징은 융합(Fusion), 합성(Synthesis), 네트워킹(Networking), 상호의존(Interdependence), 통합(Integration)이라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과학기술은 기술의 합성과 지식의 연계로서 많은 대안의 검토를 거쳐 최적의 해결책을 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즉, 21세기 과학기술은 20세기의 과학 선도 기술 개발로부터 진일보한 지식 종합 합성기술의 실용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과학 선도기술 개발시대에서는 새로운 과학의 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술합성 시대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요소는 여러 분야의 과학과 기술의 연계를 통한 실용화입니다.

21세기는 합성의 시대·융합의 시대로

이미 과거 분석적 과학기술 문명이 이끌어 왔던 20세기 후반부에서도 세계의 선두에 서있던 미국의 경제성장의 원천은 과학기술이었습니다. 경제성장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의존도는 합성적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실제로 첨단기술 산업의 경우 과학기술 기여도가 90% 이상이나 됩니다. 이런 합성기술 세대를 올바르게 운영하자면 연계된 다른 요소들이 다 포함된 종합적인 과학기술의 가치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가 간단한 부속의 미비나 고장으로 마비되는 것과 같이 합성기술사회의 운영은 연관된 분야간의 원만한 연계가 중요하다 하겠습니까.

■ 호서대학교의 건학 이념과 기본 운영방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진정 나를 사랑하며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과 능력을 기른다」는 설립자 강석규 명예총장께서 호서대학교 설립 때부터 강조하여온 건학 이념입니다. 따라서 호서대학교는 하나님의 대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교육의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 때부터 이 공학부를 집중 육성해왔기 때문에 기독교 중심의 공과대학(Christian Polytechnic University)이라고 우리의 대학 특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 중심의 대학, 공과대학 중심의 대학, 종합학문의 대학입니다. 사학의 장점을 살려서 건학 이념에 충실하고 겸손·겸소·봉사의 기본 인성 위에 분야별 전문성과 전공간의 연계성을 중시하는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 호서대학교의 21세기 비전이나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비전은...

호서대학교는 초창기부터 산·학·연·관 협동체제 구축에 전념하다가 벤처특성화로 발전했습니다. 21세기 기본발전 방향은 벤처특성과 기반을 심화하고 모든 학문분야에 벤처 정신을 기르는 교육 연구활동을 강조합니다. 특히 IT에 기초한 디지털문화 분야는 호서대학교의 우수분야인 디자인 전공과 게임엔지니어링 전공 및 문화기획 전공과 연결하여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 대학이 학부제 운영으로 인해서 순수학문 분야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호서대학교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호서대학의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호서대학교는 순수학문 분야에서의 기초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그 기초 위에 연계된 전공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역할 분담과 교육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둔 기초학문 분야의 강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대학의 과학교육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대학의 기초 과학 발전 뿐 아니라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소견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우리 대학교육은 너무나 외형적인 학위에 치

중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가장 자유롭게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할 교육분야에서 오히려 교과서의 테두리에 갇혀버리고 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학교육은 교육과정 기획과 교재 마련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연구성과는 사회에 환원되어야

첫째로 연구성과는 분명히 사회에 환원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학·연 협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념적인 차원의 산·학·연 협동이 아니라 현실적인 차원의 산·학·연 협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수는 미래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며, 산업계에 이전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을 실용의 기술로 구현해 내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대학과 산업체가 공유하고 연구성과의 사회환원을 촉진해야 합니다

둘째로 현장실습 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산학협동을 실행하는 교수 충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관료주의적 연구문화에서 탈피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수에 대한 평가 역시 형식적인 연구 업적을 강조하는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실질적인 연구개발 업적을 반영해야 합니다. 교수의 가장 큰 의무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균형된 교육·연구·봉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최근 들어 과학과 기술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평화와 삶의 질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어 이른바 반과학운동이 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 과학기술과 사회과학 나아가서 과학기술과 인문과학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총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명제가 우선

21세기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지구촌 문화의 형성과 고유한 삶의 질을 추가하는 과학기술의 문화가 동시에 발전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이용되는 정보·기술·물품·시설

·환경들이 지구촌 문화에 조화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지역사회가 추구하는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혁신이나 지식산업은 문화적 타당성에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급변하는 사회가 어떠한 문화를 선호하고 추구하는지를 파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새로운 과학기술 문명을 창조하면서도 그것이 우리 개인이나 가족 또는 직장·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를 검증하는 작업을 간과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실수는 앞으로는 용납되기 어려울 것이며, 용납되어서도 안됩니다. 과거에는 생존이 문제였지만 앞으로는 삶의 질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존이 어려웠을 때 우리는 '잘 살아보자'는 명제에 매달렸으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명제가 이제는 우선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문화적·사회적 가치 타당성은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과학기술 문명은 계속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반과학운동은 옳지 못합니다. 오히려 과학기술 문명의 순기능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종합화된 가치를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 **총장께서는 과학기술 행정가로 두번에 걸쳐 과학기술 부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과학기술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21세기에 접어드는 오늘날 우리는 지식이 결정적인 사회 운영 및 경제발전의 핵심요인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미 축적된 지식과 신지식을 접속시키며 우리가 당면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의 동원을 충분히 이루어 장·단기적으로 올바르게 이행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가능한 모든 지식을 기반으로 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들을 도출하고 그 대안들을 효율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전문인들의 핵심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역할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鄭根謨총장(왼쪽)이 李光榮 본지편집위원과 대담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과학기술입니다. 광의의 과학은 모든 지식의 모체가 될 것이나 우리는 현실적인 기술을 잉태하고 창출하는 과학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전에 산업을 일으킨 농업기술(AT), 문예부흥 이후 실사구시의 학문 발달과 함께 발전하여 놀라운 산업혁명을 이끌어 낸 제조산업기술(MT),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정보통신기술(IT), 신비로운 생명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인류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생명공학기술(BT), 거대한 우주로 인간의 영역을 확장해 주는 우주개발기술(ST), 극미한 분자 단위의 조작을 통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나노기술(NT), 과학기술과 접속하여 새로운 문화창조를 가능케 하는 문화창조기술(CT) 등은 과학이 가져다주는 기술개발의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기반사회의 근원적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식의 창출에 전념해온 과학기술자들의 노력과 투자를 이제는 지식의 실용화에 더욱 균형적으로 배분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과학기술 지식의 전파와 능력있는 인재 양성과의 전문 연구개발활동과의 연계를 강조해야 합니다. 즉 효율적인 연구개발활동이 없는 교육활동은 생명력이 없으며 교육활동 기능이 결여된 연구개발활동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깊이 인식한 과학기술 정책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⑮7